



해외정보

중국

두만강 하구개발에 관한 중국측 구상

최근 한국을 비롯 북한, 미국, 중국, 소련 등에서 두만강 특구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건설업계도 이 사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설비공사업계의 진출도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측이 내놓은 「두만강 하구 개발에 관한 중국측의 구상」이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자료는 훈춘시의 특성 및 향후 발전 방향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국내 건설업계의 중국 진출에 앞서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설비공사업계의 중국 진출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자연과 자원

1. 지리적 특성

훈춘시는 중국 길림성의 동부, 즉 동경 129° 52' ~ 131° 18', 북위 42° 25' ~ 43° 30' 에 위치하며; 동남으로는 소련의 임해 변방지역 하산구와 접경하고 있다. 훈춘지역이 소련과 접하고 있는 변경의 길이는 232.7 km에 이르고, 하산구의 수로인 슬라비얀카와는 약 121km 떨어져 있다. 하산구의 중요도시인 크라스키노와는 약 46km 떨어져 있고 동해가 소련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온 포시예트만과 가장 가까운 곳과의 거리는 수백미터에 불과하다. 하산구의 가장 가까운 포시예트항과의 육로거리는 약 61km이다. 포시예트항에서 일본 찰황까지의 거리는 이곳에서 대연까지 거리에 비해 절반밖에 안된다. 훈춘 경내의 증소변계에는 현재 長嶺子 하항이 있고, 방천과 분수령도 하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훈춘시 경신항의 방천촌은 중국·소련·북한의 3국 국경이 교차하는 정립지대로서 면적이 약 20km이며, 강과 바다에 면해 있고 지세가 평탄하여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쪽은 소련의 작은 변경철도역인 빠오더거얼나야, 서남쪽은 도문강(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두만강구와 마주 바라보고 있다.

소련과 북한의 이두
도시는 도문강
의 철도교로
연결

되어 있는데, 이 철도교가 소련·북한간 무역의 유일한 연결통로이기도 하다.

방천에서 도문강을 따라 내려오면 약 15km지점에서 동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훈춘으로 장차 소련·일본·한반도 및 동북아국가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게 될 황금 3각지대이다. 서남쪽은 도문강을 경계로 북한 함경북도의 온성·새별이·은덕·선봉 등 4개 군과 인접하고 있는데 훈춘이 북한과 접한 국경의 길이는 164.7km이다. 북한의 중요항구인 나진항과는 93km,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청진항까지의 거리는 17km로 훈춘의 중국·북한 변계에는 현재 사타자와 권하의 두 하항이 있고 이들 하항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 개방이 된 사타자 하항은 중국과 북한간에 행해지는 변경무역의 요충이 되고 있으며, 지난 '82년에 폐쇄된 권하 하항은 최근 시설을 정비하여 승인만 나면 곧 개방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북쪽은 노야령의 지맥을 경계로 길림성의 왕청현 및 흑룡강성의 동녕현과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훈춘은 중국·북한·소련의 3국이 접경하는 중국 유일의 변경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훈춘시의 절반은 산구로서 북부와 동남부는 산이 많고 지세에 기복이 많고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 가장 높은 길림산은 해발 1,477m에 이른다. 서남부는 지세가 평탄하여 훈춘·경신·춘화·경수 등 4개의 대소 분지가 있다. 경신분지 가운데 위치한 방천촌은 해발고도가 5m정도에 불과하여 길림성에서 가장 지대가 낮다.

2. 행정구획과 인구

훈춘은 1945년 11월에 현 인민정부가 설립되었고 '88년 5월 25일 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2개 진, 10개 향, 4개 가도를 관할하며, 모두 138개 촌민위원회와 853개 촌민소조가 있다. 2개 진은 경수진과 춘화진이다. 10개 향중에서 양포·삼가자향에는 만주족이 많이 살고 있다. 전시의 넓이는 5,366km²이고 시구만의 넓이는 125.8km²이다.

훈춘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사는 지방으로서, 이곳에 거주하는 민족은 한족과 조선족을 비롯하여 15개 민족에 달하는데, 한족·조선족·만주족이 많아 전체 인구의 99.7%를 점하고 있다. '88년 시 총인구는 17만8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3. 기후

훈춘시는 온대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5.65°, 연평균 강우량은 618.1mm이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기간은 145.6일, 일조시간은 2,341.6시간이다. 땅이 가장 깊게 얼어붙는 최대 동토심도는

1.54m이고 최대 적설깊이는 39cm, 최대 풍력은 9급에 이른다. 기후가 비교적 온난다습하여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반면 홍수로 인한 재해와 저온냉해라는 불리한 조건도 안고 있다.

II. 경제·사회발전 현황

1. 인구

1988년 현재 훈춘시 인구는 17만844명으로 연변지구 총인구의 8.5%를 점해 연변지구 8개 현시에서 7번째가 된다. 시 인구밀도는 km²당 32명으로 연변지구 평균 인구밀도 47명보다 낮다.

훈춘시의 인구증가속도는 매우 완만하여 1949년에서 '88년까지 39년간 76.7%증가에 머물러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길림성의 2.5%보다 훨씬 낮은 1.5%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증가율이 낮은 것은 훈춘이 오랜 기간 변경금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훈춘 이주가 제한된 데다가 산업이 낙후되어 기술인력의 유출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현저하게 줄기 시작하여 '88년 인구 천명당 출생은 18.3에 사망은 6.3으로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19%수준에 그쳤다.

'88년 훈춘시 인구의 성별 구성은 남자 8만6,417명, 여자 8만4,227명으로 여자를 100으로 했을 때 남자는 102.34로서 길림성 전체수준보다 낮다.

지역별로는 시구의 인구가 9만9,986명으로 전체인구의 58.5%, 농촌인구는 7만858명으로 41.5%를 점하였다. '78년과 비교할 때 시구인구는 3.7배가 늘어난 반면 농촌인구는 61.3%가 감소되었다.

전체인구는 농업인구가 54.9%, 비농업인구가 45.1%를 점하며, 농업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나 9%정도는 도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훈춘시의 인구구성은 비농업인구와 도시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978년에서 '88년의 10년간 비농업인구는 연평균 8%가 증가한 반면 농업인구는 1.1%가 줄어들었다. 이때문에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의 비율은 1978년 73 : 27에서 '88년에는 56 : 44로 좁혀졌다. 비농업인구가 신속히 증가함에 따라 총인구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추세를 보여, 1978년 도시와 비도시인구 비율이 22 : 78였던 것이 '88년에는 40 : 60으로 되었다.

훈춘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사는 지방으로서, '88년 통계에 따르면 한족이 6만2,518명으로 전체인구의 36.6%, 조선족이 9만646명으로 53.1%, 만주족이 1만7,222명으로 10.1%, 그리고 회족·몽고족등 기타

민족이 458명으로 0.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와 인접해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조선족이 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있는 것이다.

1988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1,825원이고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518원이다.

훈춘시 역시 다른 중국지방처럼 재정자금에 여유가 없는 곳이지만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88년에는 110만원을 투자하여 춘화·경수·삼가자·마천자·양포등 5개 향전에 수도관을 부설하고 3.7km의 배수관과 일급시멘트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밖에 주택, 가로등, 공중화장실등 도시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노동력

1988년 훈춘시의 사회노동력은 9만5,819명으로 전체 인구의 56.1%, 노동적령인구의 80%를 점한다. 1978년에서 '88년까지 10년동안 노동력은 같은 기간 중 인구증가율 1.8%를 훨씬 웃도는 5.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공광업부문의 노동력이 2만 4,831명으로 전체노동력의 25.9%를 점하고 농업노동력은 4만5,238명으로 47.2%, 교통체신부문은 1,388명으로 1.4%, 건설업부문은 6,818명으로 7.1%, 상업·서비스부문은 4,011명으로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간 추진해 온 경제체제개혁의 결과로 산업구조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8년 농업·공업·서비스업(건축업 포함)의 노동력 비율은 7:1:2였던 것이 '88년에는 5:3:2로 바뀌었다. 자치주와 비교하여 훈춘시의 농업노동력 비중은 성(길림성)보다는 낮으나 주(연변자치주)보다는 높으며, 서비스업 노동력은 성·주에 비해 모두 낮다. 훈춘시의 사회노동력 구성은 이미 공업과 3차산업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노동력은 5만8,295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62.2%를 차지한다. 농촌노동력중 연중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은 4만5,200명으로 농촌노동력의 77%수준이다. 훈춘시의 경지는 43만1,150무로서 1인당 평균 9.5무의 경지가 돌아가는 셈인데, 시 정부의 농업 계산에 의하면 노동력 1인당 3분의 1의 잉여노동력을 갖고 있어 농촌노동력은 아직 그 동원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기초시설 현황

가. 교통 현황

훈춘시의 도로교통 운수노선은 모두 18개이다. 총 길이는 439km(산업도로 제외)로서 그중 2급도로가 53km, 3급도로가 12km, 4급도로가 306km, 등의도로가 67km로 구분된다. 도로망의 밀도는 100km²당 8.17km로 중국전체(9.4km)와 길림성(12.9km)의 평균수준보다 낮다. 광산·임업을 위한 산업전용도로는 359km로 밀도는 100km²당 6.69km이다.

현재 훈춘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은 5,538대로 도로 1km²당 12.6대, 그리고 1만명당 324.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88년 도로화물운송량은 116만톤, 도로여객운송량은 22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훈춘은 변방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며, '85년 중앙정부에 의해 본격적인 도로건설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는 훈춘으로 들어가려면 몇 개의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고 그나마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같은 취약한 도로사정이 훈춘시민의 생활과 각종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여 훈춘의 발전을 제약한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상태를 개선하고 또 소수민족지구의 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85년 밀강령에 터널을 뚫고 '86년에는 다시 4,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문강변의 산을 깎아내 도훈 2급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훈춘의 교통사정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훈춘과 중국의 내지를 보다 긴밀히 연결시키기 위해 현재 도훈철도가 건설되고 있는데, '91년말까지는 개통될 예정이다. 중소 국경에는 長嶺子 무역하합의 건설과 동시에 훈춘시구와 하항까지의 도로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길림성과 연변자치구 및 훈춘시는 공동 출자하여 長嶺子 도로를 건설하였다. 2급도로로 설계된 이 도로가 '90년말에 완공됨으로써 시구에서 長嶺子까지의 거리는 종전의 25km에서 14km로 단축되었다.

과거에는 경신향의 방천촌에 가려면 반드시 소련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이 수속이 번잡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80년대초 정치적 영향과 방천의 교통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도문강리에 제방도로인 양관평로를 개설하였다.

훈춘과 방천지역을 통하는 교통여건을 개선한데 이어 훈춘시는 각 향촌도로의 확장 보수공사에도 착수하여 '88년에 합달문·양포·판석·경신향등의 향촌도로를 정비하였다.

나. 통신 현황

훈춘·장춘간 마이크로 통신망의 개설, 훈춘과 여타 지역과의 직통전화 개설등 훈춘의 통신사업은 최근 수년간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시의

전화보급률은 100명당 1.71대, 시내전화보급률은 100명당 3.26대로 연길시(100명당 5.27대)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훈춘시 12항진은 모두 우편전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기본적인 통신상황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전력 상황

훈춘의 풍부한 석탄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 '85년 훈춘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2년 후인 '87년 4월에 착공하였다. 중앙정부에 속하는 이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60만KW발전기로서 제1기 공사에서는 10만KW발전기 2대를 설치키로 하고 그중 1대는 지난 '88년 공사를 끝냈다. 나머지는 제9차 5개년 기간중 전부 건설할 계획이며,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길림성의 전력부족이 해소되고 연변지구와 훈춘시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훈춘시에는 대소 하천 33개가 흐르고 있어 수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편에 속한다. 이들 수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아래 길림성정부는 노룡구 댐 발전소와 춘화시의 태평구 댐 발전소를 8차 5개년 계획 기간중 건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훈춘하 상류의 대북성·상서도구, 밀강하의 삼안·중강자, 도문강 상류의 회룡봉·영서등에도 발전소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금후의 개발구상

훈춘시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3국 접경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유리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다. 1988년 5월 훈춘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로 승격되었다. 국무원은 또 長嶺子를 대소무역 하항으로 개발하여 소련과 변경무역을 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결정은 훈춘의 개방과 개발을 촉진하고 훈춘의 지명도를 높여 많은 국내의 신문·잡지들이 훈춘시의 상황과 훈춘이 장차 동북아경제권에서 차지할 중요한 경제역할을 소개하고 훈춘이 앞으로 동북아의 '김삼각'(Golden Delta)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자원이 풍부하고 변경에 위치한 훈춘의 우월한 여건을 충분히 이용하고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훈춘을 환태평양경제권의 창구와 통로로 만든다는 방침아래 길림성정부는 지난 '88년 12월 13일 훈춘을 길림성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였다.

1. 훈춘의 개발·개방 조건

가. 환동(일본)해지구의 전략적 지위와 훈춘 발전에 대한 영향

환동해지구는 일본·한반도·소련 극동지구와 중

국의 동북지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지구로 불리우는 이 지역의 넓이는 약 800여만km에 달하고 인구는 3억 정도가 된다. 이 지역에는 경제력이 막강한 소련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오랜기간 세계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이 가장 치열하였던 지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80년

이후 국제적인 긴장이 완화되고 해빙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각국간에는 지금까지 격렬했던 적대관계를 지양하여 대화를 통한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환동해지역 국가간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상호간의 경제협력이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한국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일약 아시아 4개 신흥공업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자체의 생산력 강화와 미국의 왕성한 시장수요를 중심으로한 세계시장에 의존하여 강력한 경제력을 쌓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대외채무 격증에 따른 채무압력으로 국내수요를 축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환동해지역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개척해야 할 지역은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국가시장이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의 대미달러 환율은 3년간 30%나 절상되고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내임금도 부단히 상승하여 수출상품 가격의 상승과 국내제품원가의 상승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노동집약산품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접근에 있어 길림성 연변지구는 한국기업에 대해 비교적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조선인이 연변을 제2의 고향으로 하고 있고 한국이 연변조선족과는 혈연과 전통상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홍콩 또는 다른 지역을 돌아 연변을 방문하고 있으며, 또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조상의 뿌리를 찾고 친척·지구를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춘을 찾아오기도 한다.

소련도 환동해 경제협력에는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은 최근에 이르러 극동지역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과거의 폐쇄적인 독자개발과는 달리 특구등을 설립하여 중국·남북한·일본과 대규모의 합작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인구가 극히 적은 소련 극동지구는 지역이 광활하여 동해에 면한 해안선의 길이가 1,800km에 달한다. 극동의 주요도시인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경제는 오히려 극히 낙후되어 있다. 1986년 7월 코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과 함께 지금까지 미개발지역으로 버려져 있던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정부에 의해 개발·개방의 일정이 잡혀져, 이미 실시단계에 들어섰다. 소련은 최근 또 나호드카에 의해 개발·개방의 일정이 잡혀져, 이미 실시단계에 들어섰다. 소련은 최근 또 나호드카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키로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련의 극동지역은 내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일체를 내지에 의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변에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소련이 경제면에서 동해로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하면 소련 극동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연자원은 한 나라의 공업화를 지탱시켜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련의 자원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극동지역은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대량의 노동력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후룡강·길림 그리고 내몽고자치구등은 소련, 극동지역에 노동력을 수출하는등 노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하나의 대국으로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소련의 국제경제협력과 분업에의 참여는 동해 경제구의 발전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련의 대외개방과 개발은 소련과 232.7km의 국경을 접한 훈춘시에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훈춘으로 하여금 대외개방과 개발측면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환동해지역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대한 나라이다. 일본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의 주의력을 점차 태평양지역으로 넓히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일본의 경제력이 증감됨에 따라 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나날이 확대

되고 있으며, 미국을 대신하여 이 지역의 주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동시에 '미국·캐나다 자유무역구'와 1992년 '유럽통일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자신의 경제세력 판도를 확립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외에 일본은 산업구조의 고도화화에 따라 일부 가공수준이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해외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80년대부터 일본은 관민 모두 일본과 태평양지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태평양공동체' 또는 '동아경제권'의 설립을 위한 구상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과 구상은 일부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과 한국등의 반대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대외개방실시를 선포한 후 일본은 동해지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련의 하산지구 국제자유투자구 설립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학자들은 '환동해 경제구'의 형성이 일본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것이며, 사실상 이같은 경제구의 설립은 일본처럼 자원이 빈약하고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국가에는 더욱 유리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총괄적으로 보아 '환동해 경제구'형성은 환동해 지역의 모든 국가에 유리할 것이다. 일본의 방대한 자금은 그 투자대상을 찾아야 하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필요로 하며, 소련은 현재 '신산노'에 의해 극동을 개발중에 있고 남북한은 점진적인 긴장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의 전개는 환동해 경제구의 형성에 지극히 유리하며, 이때문에 이지역 경제상황의 진전은 중국 동북지역과 길림성·연변의 발전에 모두 절호의 기회가 되며 특히 3국의 접경지대, 그 통로와 창구에 위치한 훈춘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3. 훈춘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훈춘이 경제개발구로 지정된 것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외에 주로 그 특수한 지리적 위치때문이며, 이러한 입지조건이 장차 훈춘을 중국과 환동해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창구 및 기지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훈춘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경제발전 방식에 있어 조속히 수출가공과 무역중심의 외향형 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 계속)